

이 모 저 모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오는 10일 정식개장

이미 운영에 들어간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이 오는 10일 정식 개장식을 갖는다.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본 협회가 개설한 상설매장은 경동한약상가 내 기존의 중앙공판장을 개조한 것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개장 행사에는 유관기관과 협회산하 각 지방 지부장을 비롯 사무소장 공판장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는 앞으로 각 지방에도 지점을 내 상설매장을 체인화할 방침인데,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에 힘 입어 희망자들이 꽤 늘어날 것으로 전망.

남산가꾸기 참가

지난달 5일 본 협회 사무국 직원 일동은 그린스카우트에서 주관한 남산 환경가꾸기 행사에 참가,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협회가 지난해

12월 그린스카우트 지부 발대식을 가진 후 갖는 공식 첫 행사.

오염되지 않은 청정 생약재 생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본 협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한약협회 정·총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회장·윤제은)는 지난달 28일 서울 팔레스호텔 지하1층(궁전홀)에서 제38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안승관이사 라이온스 경북총재에



본 협회 안승관 이사가 국제 라이온스 309N(경북)지구 총재

생약인으로서

최근 UR협상 등에서 보듯이 세계 추세는 농산물마저도 시장경제의 근본 속성인 자유경제의 파고를 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한 영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견뎌온 남아있는 농민마저도 이제는 농촌을 떠나 다른 직업으로 생계수단을 바꾸어야 할 지도 모를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농산물도 수입 농산물과 대등한 경쟁을 벌여 그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국내 환경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향토구조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몇몇 젊은 향토인들이 모여 지산식품이라는 아주 토속적이고 색다른 농산물 가공 업체를 구성 왕성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안의면에 위치한 약초시험장 과도 연계하여 동굴레 재배 기술 및 제품질 향상과 가공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농협 우편주문판매 등 일반식품박람회 등 두차례 참가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동굴레 차

는 일본 미국 호주 대만 등 각 나라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이며 국내 무료시음회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굴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연산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재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굴레 뿌리(일명 황정)를 상품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는 농가대로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굴레 보급을 위해, 지산식품은 어려운 농촌살림을 감안하여 종자를 무료로 공급하여 계약재배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미약한 민간업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UR 대체 품목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계도가 필요하고, 유망품목 개발과 그에 따른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 농촌도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08> 김승교

로 당선되었다.

안이사는 현재 민주산약회 안동시 부지부장, 안동 불교대학 이사장을 역임중이며 순흥당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다.

「생약판매동향」강의 김용한이사, 농진청서

본 협회 김용한 이사는 오는 24일 농진청에서 실시하는 '95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교육 강사로 출강, 「생약판매 동향」에 관해 강의할 예정.

5월 지부회의 일정

- 경 상 남 도(지부장, 이영갑) 5일
- 경 상 북 도(지부장, 배성한) 10일
- 부 산 광 역 시(지부장, 권순직) 10일
- 충 청 남 도(지부장, 문대규) 25일

본 협회 이종용 회장도 올해부터 농사를 짓는다.

지난달 28일은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소재의 1만여평 밭에 황기파종을 마쳤다.

이 회장은 『생약 생산자 단체인 한국생약협회 회장으로 서 농사를 짓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직접 농사일을 하다 보면 농민의 현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재배농민들의 입장에서 우리생약살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우리도 농사꾼

본 협회는 최근 지황 자급화를 목표로 국내 재배농가들과 지황 계약재배를 하는 한편, 협회 자체적으로 지황 시범포를 따로 설치했다.

2천4백평 규모의 지황 시범포는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용전리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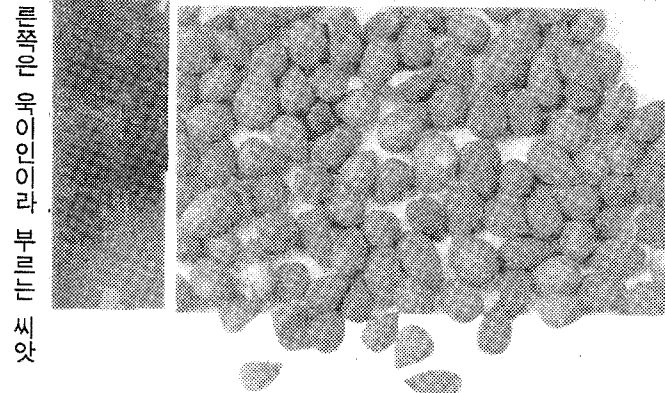
지난달 30일은 지황 시범포 파종 날이었다. 협회 사무국 직원 일동은 파종현장에 참가, 직접 지황 종근을 심어 보기도 했는데,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모처럼 현장체험의 기회가 됐다고.

손쉬운 민간요법 황달

빛깔있는 책들 <105> 민간요법 中 발췌



◇ 위는 산이슬라지나무이고 오른쪽은 육이인이라 부르는 씨앗



황달은 간기능 장애로 인하여 담즙의 분비가 잘 되지 않으므로 전신에 황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질환은 담석증에서 더욱 현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가벼운 증상은 치료되는 예가 있으나 담석이 커진 것은 잘 낫지 않으므로 외과적인 수술에 의해서 제거시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황달은 간기능이 원인이 되어 전신이 노랗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쉽게 치유하는 것들을 예시하였다.

산이슬라지 뿌리 산이슬라지는 장미과에 속

한 낮은나무로서 5월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빨간 실과를 맺는데 그 크기가 작고 아름답다. 이 나무는 전국 각지에서 많이 야생하는데 씨앗을 '육이인'이라고 하여 변비 치료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용법: 이 나무의 뿌리를 잘게 썰어서 1백50 내지 2백그램에 물 3백밀리리터를 넣고 2시간 동안 끓여서 1백밀리리터가 되게 달인다. 이것을 한번 용량으로 하여 하루에 3번 복용하면 피부가 노랗게 되는 것을 치료한다. 어린아이는 달인 물로 전신 목욕을 시키면 효과가 있다.

효능: 피부가 노랗게 되는 것을 치료하나 아직까지 치료 반응에 대한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외 꼭지

참외의 꼭지는 아주 쓰고 독이 있으므로 함부로 쓰기 곤란하다.

사용법: 꼭지를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한번에 0.1 내지 0.15그램을 환자의 코에 넣어 넣고 40분 내지 1시간이 지나면 노란 콧물이 배출되면서 황달이 없어진다. 또한 참외 꼭지 5그램을 물 100밀리리터에 넣고 10분 동안 끓인 뒤 뚜껑을 열어 놓고 식히면서 하루 2,3번 식사 뒤에 복용하면 곧 효과를 얻는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이 약을 복용치 말고 코로 삽입하여 중독 증상을 피해야 한다.

효능: 참외 꼭지는 황달형 전염성 간염에 임상적으로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황달이 없어지면 식욕이 증가하고 간기능도 호전된다.

민들레

사용법: 봄에 노랗게 피는 민들레는 뿌리째 캐어 건조시킨 다음 한번에 신선한 것은 80 내지 1백그램을, 말린 것은 3백그램을 물로 1시간 동안 끓인 다음 그 물을 한번에 마신다. 이와같이 하루 3번 복용하면 치유된다.

효능: 이 약은 일체의 화농성 질환에 소염, 배농제로 탁월한 반응을 일으키지만 소화기에 들어가서는 위장에 염증을 제거시키고, 간장에 들어가서도 역시 염증을 띠었다. 곧 간장 안에서 효소의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의 분해 작용도 현저하게 한다. 이와 같이 간장 질환이 치료되므로 황달까지 없어진다.